문화교류연구 제8권 제1호 (2017) pp.29-51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채은희* 박미숙**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중년기 사람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동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동향을 성별, 세대별, 대상별, 연구방법별, 노후준비 유형별로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성별에서는 남녀가 혼성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보단 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둘째, 세대별 연구는 중년기세대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대상은 이주자보다 정주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연구방법은 대부분 양적연구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질적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노후준비 유형은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은 전체적인 혼합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경제적 노후준비 관한 연구가 많았다. 여섯째,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경제적인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방안에 대해 개인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노후준비, 결혼이주여성, 중년기, 연구동향, 탐색적연구

Ⅰ. 서론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53.7세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5년 82.3세로 65년 만에 무려 30년 가까운 기대수명이 증가 되었다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수료
**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교수

(WHO, 2016). 이러한 현상은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의 적절한 노후준비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통해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지금의 중·고령층의 노년기 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과거 가족과 친족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동양적 가치관은 현재의 개인주의 성향과 충돌하며 혼란을 경험하고, 지금의 중·고령세대는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이라는 희생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녀에 의한 부양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고 말았다(박창제, 2017).

행정안전부(2017)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14%를 초과하여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많은 연구자들은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2018년 10월 논문 통합검색 사이트인 RISS에 '노후준비'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학위논문 1,397편, 국내학술지논문 787편, 단행본 1,722편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 학위논문 1,397편의 연도 별 발행률을 살펴보면, 1970년대 0.1%, 1980년대 0.9%, 1990년대 4.4%, 2000년대 현재 편수 94%로 2000년 이후 노후준비 관련한 연구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년기 보다 중년기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정순돌·박애리, 2016; 변진숙·권찬호, 2016; 이남·한정란, 2017; 심의경·박연지, 2017; 김연화·황종규, 2017; 양재혁·김경렬, 2017; 정은경·김종근, 2017; 성영애, 2018)가 많다. 그 이유는 노후 가치관의 변화가 중년기부터 인식하고 시작하는데(김양이·이채우, 2008), 특히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중년기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년기의 노후준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박현식 외, 2010).

중년기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한 사람들에 연구(이여봉, 2012; 강향미·구종회, 2014; 최영준, 2015; 변진숙·권찬호, 2016)와, 중년기 여성에 관한 연구(나지나 외, 2010;이여봉, 2012; 이남·한정란, 2014; 성지혜, 2015; 정순돌·박애리, 2016; 이남·한정란, 2017; 송선희, 2016)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고 출산 세대의 확장 이후 이들 세대들이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노후준비에

관한 관심 또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이면서 여성에 해당하는 중년기 여성들은 사회와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남성들로부터의 소외가 노후 빈곤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나지나 외 2010). 이러한 현상은 여성 중 특히 중·장년기 여성의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중·장년기 여성보다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자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성지혜(2015)는 사회 집단 안에서의 취약계층을 여성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여성 내부에서도 좀 더 취약한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이주배경 가정 월평균소득이 정주자 가족과 비교하여 불균형하고 인적 자원 지지기반의 부족은 미래에 노후 빈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준비는 정주자 집단의 여성노인 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이주자들의 노후준비 관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주로 독일 교민이나 필리핀 교민, 뉴질랜드 교민 등 이주 배경이 있는 한국인 이민자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박현식·최옥자, 2012; 박현식, 2013; 이미영, 2017)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금융 준비에 관한 연구(김정근·김효주, 2018)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내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노후 준비는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동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이주민의 노후준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Ⅱ. 중년기 결혼이주여성과 노후준비

1. 중년기 결혼이주여성

법무부(2018)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주자는 1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6.8%를 차지하며 이들의 유입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는 남성은 16.7%, 여성은 83.3%로 여성이 월등히 많으며,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하여 당연 중국 국적자 36.9%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 베트남 26.8%, 일본 8.6%, 필리핀 7.5% 순이다. 이들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8.5%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서울,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혼인 귀화자는 12만 6천여명으로 전체 결혼이주자 중 80.0%에 차지할 정도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윤혜미(2009)는 한국의 결혼이주의 유형을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1990년대 초 중국과의 국교를 기점으로 하는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유입이다.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언어 소통이 자유로워 한국사회 적응력도 빠르고 비교적 빠르게 취업을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점을 이용해 취업한 후 잠적하여 쉽게 결혼생활 해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둘째, 일본, 중국의 한족, 필리핀 여성 등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나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결정한 예이다. 이는 종교성이 강하고 주로 일본 출신 여성들이 특정 종교로 결합하여 비교적 생활수준, 교육수준이 높은 특성이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유입된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이들은 다른 이주 배경 여성들에 비해 새로운 이슈로 다가왔다. 매매혼에 가까운 이들은 모국에서의 생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거나, 대부분 한국인 남편과 연령 차이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언어문제, 문화적응문제, 세대차이, 정보부족, 경제적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렇게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여 생긴 사회현상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결혼이주자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체류외국인과 다르게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한다.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양상 되기도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적응에 주력해야 한다. 이들을 통합하는 과정은 사회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Oetting & Beauvais, 1991; Gil, Vega & Dimas, 1994).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결혼이주자들의 경제적 자립, 부모교육 및 가족 의사소통 교육 등 프로그램 확대, 신체·심리·정서·사회적 개입을 위한 공적 자원의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이형하, 2013; 김영욱 외, 2014; 한재희, 2014; 손병덕, 2017; 김민수, 2017).

1990년 처음 중국 조선족 여성의 대거 유입으로 시작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현재 대부분 중년기에 접어들었다. 학자들은 중년기를 정의함에 있어 연령, 생활

기준, 심리·생리적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서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선 연령적 정의에서 Erikson(1950)은 40~60세, Havighurst(1972)는 30~60세, Gould(1978)는 35~4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35~65세까지를 중년기로 규정하고 있다(고효정·오명옥, 2000). 이렇듯 중년기를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름은 시대적, 사회적 맥락의 변화와 함께 중년기에 대한 다른 요소들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연령의 정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활기준에 따른 중년기에 대해 Havighurst(1972)는 중년기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절정에 달하지만, 그와 함께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유기체 내부에서의 변화와 환경적 압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았다. 그러나 Borland(1978)는 중년기가 연령과 상관없이 막내자녀가 독립하고 본인은 은퇴시기를 맞을 때로 정의하며 진수기(launching stage), 탈 부모기(post parental period), 빈 보금자리기(empty-nest period)로 명명하기도 한다.

중년기는 개인이 젊은 시절 가졌던 목표와 현재의 성취를 비교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대해 회의하지만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임을 받아들이며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Lavison, 1978). 이에 김애순·윤진(1993)은 중년의 위기를 인생의 중반에서 재조명되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됨을 설명하며, 중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관, 생의 우선권, 타인과의 관계 등 지난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찰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는 시기로 보았다. 하지만 자아정체감과 인지의 변화, 신체적·정서적 변화 등에 의해 수반되는 고통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이를 중년의 위기로 받아들이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Jacques(1967)와 임경수(2005)는 중년의 위기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중년기가 삶의 유한성 즉,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회고하고 앞으로 다가 올 죽음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며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보았을 때, 중년기는 인생 전반에서 청년기와 노년기 중간에 위치한 40세에서 65세까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위기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중다 요인을 통해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임경수, 2005).

그러나 연구자들은 여성의 중년기에 대해 조금 다르게 접근하였다. 임인숙·백수경(2015)은 한국 중년기 여성의 변화를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폐경(廢經)을 경험하며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된 여성의 인생 제2막의 관점을 강조하지만 그로 인한 우울증과 무력감, 안면홍조, 질 건조증 등과 같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홍용촌(1997)은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경험에 대해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지만 이들은 더욱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 사회활동에 깊이 관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전의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가정생활의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적극성이 이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여성의 정서적 변화에 대해 김재은(1983)은 이 시기는 신체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동반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즉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생을 성찰하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중년기 여성에게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특징이 나타나듯이 한국 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비슷한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한국의 중년여성에게 나타나는 특성과 함께 자신만이 경험한 이주여성으로서의 특수성도 추가(이정은, 2017)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보다 더욱 취약한 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성지혜,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노후대책이나 준비에 관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경제적 가치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무관심은 자칫 노년기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일 것이다.

2.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

개인의 자구적 노력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이여봉(2012)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년기 여성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적극적인 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거의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가구경제에 관한 인식이 노후준비에 결정적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중년기 이혼여성은 노후생활에 대해 자립적으로 노후준비를 계획한다(이남·한정란, 2014). 이들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하였다. 그러나 성지혜(2015)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현실의 경제적인 어려

움으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년기 여성일지라도 상황과 맥락, 환경과 성격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Gross, Crandall & Knoll(1973)은 노후준비에 대해 은퇴 이후 삶의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여 노년기가 되었을 때 현재의 삶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석상훈 외, 2011). 특히 노년기에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직면 시기에 바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중년기부터 미리 준비해야함이 강조되고 있다(배문조, 2011).

노후준비에 대해 김혜진(2012)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나누었다. 먼저 신체적 노후준비는 신체적 노화현상은 중년기에 시작하여 노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저하는 노년기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건강의 문제는 노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과 사회적 활동 제한, 고독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자아 기능마저 위축되게 하여 노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노후준비는 단순히 여유로운 소비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준비를 넘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박은숙 외(1997)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행위가 노후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을 때, 신체 건강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Maria 외(2012) 역시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신체적 건강상태가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Guedes 외(2012)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육체적 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육체적 활동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노후생활에 있어 신체적 건강이 먼저 뒷받침 되어야 다른 노후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과 직관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후준비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여 이것이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노후생활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유인순· 최수일, 2012). 노후생활에 있어 신체적 건강 다음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년기에는 실제적인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는 시기이므로 이에 따른 합당한 준비가 요구된다. Anderson 외(2000)는 30~49세 중년을 대

상으로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기 재정의 적절한 준비는 중년기 은퇴를 편안하게 수용하는데 많은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에 Morgan & Eckert(2004)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은퇴 후 경제적 준비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준비에 관해 본인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준비상태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2012)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있어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30.6%, 그다음은 자녀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4.2%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노후준비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2명 남짓 이었다. 그러므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정서적으로 노후준비가 확산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독노인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들이 사회 내에서의 소외현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노년기의 은퇴 및 사별, 가족 안에서의 역할상실, 친구 및 이웃의 부재 등의 소외경험은 자칫 노인 우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정서적 측면의 노후준비가 강조되기도 한다(이정화, 2009). Crosnoe & Elder(2002)는 사회활동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중요한 결정적 요인으로써 직장과 친구, 사회단체들과의 관계유지 및 교류는 만족스러운 노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뿐 아니라 친구, 직장동료, 종교, 공공단체와 소통을 통해 친밀한 무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공적 노화가 결정된다(Antonucci, 2004). 또한 홍현방(2005)은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사회활동은 정적상관을 가지며 원만한 대인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함께 안정된 노후의 성공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기보다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노후준비를 해야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으로 고르게 균형 잡힌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성공적이면서 행복한 노후생활

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되어야 한다(박창제, 2008). 노후준비는 정주민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주민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주배경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개입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노후준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주자인 한국인 뿐 아니라 이주자인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동향을 탐색하기 위해 학술연구 정보 사이트 인 RISS를 통해 학위논문 1,399편과 국내학술지논문 789편을 추출하였다. 그 중 국내학술지논문 789편에 관한 내용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를 출현년도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노후준비' 문헌검색 결과 (국내학술지논문)

년도	편수	년도	편수	년도	편수	년도	편수
2018년	44편	2009년	31편	2000년	2편	1988년	1편
2017년	87편	2008년	26편	1999년	3편	1987년	1편
2016년	97편	2007년	8편	1998년	4편	1983년	1편
2015년	84편	2006년	9편	1997년	2편	1984년	1편
2014년	94편	2005년	7편	1996년	1편	1981년	1편
2013년	94편	2004년	11편	1995년	2편	1973년	1편
2012년	69편	2003년	7편	1994년	2편		
2011년	46편	2002년	5편	1993년	3편		
2010년	33편	2001년	8편	1992년	4편		
소계	648편	소계	112편	소계	23편	소계	6편
총계 789편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공_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2018년 11월 2일 검색.

위의 <표 1>을 살펴보면 문헌 출현 빈도는 2000년대 전반보다 후반의 문헌 출현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3년부터 급격히 높아진 문헌출

현 빈도 확인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문헌검색 500편의 내용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2013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노후준비'로 검색된 국내학술지논문 500편을 성별, 세대별, 대상별과 함께 연구방법 유형별, 노후준비 유형별 등이 확인 가능한 문헌만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처럼 다섯 가지 분석 조건이 모두 충족된 문헌을 최종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결과 500편 중 176편을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이는 전체 중 35.2%에 해당되며 자료선정 과정에서 분석 조건은 다음 [그림 1] 같다.

국내학술지논문(노후준비)		분석 조건		최종 문헌선정 편수
▶ 선정 년도 및 편수: 2013년 94편 2014년 94편 2015년 84편 2016년 97편 2017년 87편 2018년 44편 (11월) 총 출현 편수: 500편	=	성별 세대별 대상별 연구방법유형별 노후준비유형별	=	2013년 24편 2014년 33편 2015년 28편 2016년 34편 2017년 34편 2018년 23편 (11월) 최종 선정 편수: 176편

[그림 1] 분석 조건 모형

본 연구의 분석 조건인 성별, 세대별, 대상별, 연구방법유형별, 노후준비유형별에 해당되는 문헌 내용을 선별하였을 때, 2013년은 24편, 2014년 33편, 2015년 28편, 2016년 34편, 2017년 34편, 2018년 11월 23편으로 총 176편 문헌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중 연구방법 유형별 구분은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양적연구는 사회적 현상을 숫자로 환원시켜 대상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된 실재라면, 질적연구는 사회적 실재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적 신념을 가진 개인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 가운데 구성된 사회적 속성을 이해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 양적연구가 합리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 전통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질적 연구는 해설적, 자연주의적 탐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5). 최종 선정된 176편의 문헌내용을 바탕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향을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Ⅳ. 연구 결과

1. 노후준비 유형별 분석 내용

1) 성별, 세대별, 대상별 유형 분석

RISS(2018)에서 '노후준비'로 검색하였을 때 총 789편의 국내학술지논문 중, 년도 별 출현 편수에서 최근 급증하게 된 2013년에서 2018년 11월까지 총 6년 동안의 문헌 500편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 중 성별, 세대별, 대상별, 연구방법 유형별, 노후준비 유형별 등 5가지 분석조건을 통해 얻은 최종 분석 자료는 176편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 연구

단위: 편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계
성별	여성	1	1	7	4	7	2	22
	남성	-	3	1	-	1	-	5
	혼성	22	30	26	24	25	22	149
합계		23	34	34	28	33	24	176

노후준비의 '성별' 조건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남녀 혼성이면 혼성으로 나누었다. 이 중 혼성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149편으로 83.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남녀 혼성을 제외하면, 여성이 12.3%, 남성이 2.8%로 여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지혜(2015)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을 남성보다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빈곤 문제는 물론 여성들이 노후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년도 별 출현에서 여성은 2014년도와 2016

년도, 남성은 2017년도에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노후준비의 세대별 조건유형은 주로 청년기와 중년기, 베이비부머세대나 중년기, 중년기와 노년기, 그리고 노년기와 전 세대로 나뉘어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자로 정의 했다(이여봉, 2012), 베이비부머세대는 중년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중년기와 베이비부머세대를 특징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함을 확인하고 연구자 개인의 연구 의미를 위해 사용된 명칭 구분을 존중하였다. 그로 인해 중년기에 해당되는 베이비부머세대의 구분을 다음 <표 3>와 같이 구분 정리해 보았다.

<표 3> 세대별로 나눈 노후준비 연구

단위: 편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계
세대별	중년기 (베이비부머)	12 (5)	19 (5)	20 (10)	16 (4)	23 (6)	13 (5)	103 (35)
	노년기	3	6	4	3	3	7	26
	청년기/중년기	–	1	–	2	1	1	5
	중년기/노년기	2	–	4	1	–	2	9
	전 세대	6	8	6	6	6	1	33
합계		23	34	34	28	33	24	176

‘세대별’ 조건유형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중년기가 5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 세대 18.4%와 노년기 14.5%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중년기에서 노년기 5.0%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청년기에서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2.8%가 있다. 그리고 노년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6편으로 14.5%를 제외하면, 전체 세대 중 83.8%가 중년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년도 별 출현 내용을 살펴보면, 명칭 사용에 있어서 ‘중년기’는 2014년도에 가장 높은 출현이 있었지만, ‘베이비부머’의 명칭 사용은 2016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전세대 역시 2013년도를 제외하고 다소 안정적인 출현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노후준비에 관한 ‘대상별’ 조건유형이다. 대상별 조건유형 분석에서는 크게 정주자와 이주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정주자에는 일반인, 장애인, 이혼자

등이 포함되며, 이주자에는 재외동포, 북한이탈민, 결혼이주자로 구분하였다. 그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대상에 따른 노후준비 연구

단위: 편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계
대상별	정주자	일반인	16	25	28	26	28	22	145
		장애인	6	6	4	1	3	1	21
		이혼자	-	1	1	-	-	-	2
	이주자	재외동포	-	1	-	-	-	1	2
		북한이탈주민	1	1	-	-	-	-	2
		결혼이주자	-	-	1	1	1	-	3
	한국인 + 외국인		-	-	-	-	1	-	1
합계			23	34	34	28	33	24	176

대상별 구분에서 우선 정주자 집단과 이주자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정주자 집단이 93.9% 이주자 집단은 3.9%로 정주자 집단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 정주자 집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1.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1.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 안에서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보았을 때, 장애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의 증가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 외에도 비록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주자 중 이혼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은 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주자 집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인이지만 외국으로 이주해 사는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가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1.1%, 그리고 외국에서 이주해 들어와 사는 결혼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1.7%로 나타났다. 이를 보았을 때 재외동포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들을 모두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였을 때,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노후준비 인식에 관한 내용이 1편으로 0.6%를 차지한다. 그리고 년도 별 출현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집단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2014년, 2015년, 2016년을 제외하고 이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별’ 조건에서는 남녀 모두를 포함한 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혼성을 제외하고는 대상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음이 확인되었다. ‘세대별’ 조건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중년기 세대의 포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별’ 조건으로 나눈 연구에서는 정주자 집단이 이주자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자 집단 중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이 확인 되었으나, 이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내용은 그들이 차지하는 수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연도별 내용에서도 다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2) 연구방법 유형과 노후준비 유형 분석

연구방법 유형과 노후준비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어떤 연구방법을 활용해 결과로 도출시켰는지 확인해 본 결과 주로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방법에 따른 노후준비 연구

단위: 편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계
연구방법 유형	양적연구	20	31	33	26	33	24	167
	질적연구	3	3	1	2	–	–	9
합계		23	34	34	28	33	24	176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에 비해 양적연구방법이 주로 사용 하였다. 양적연구가 전체의 94.9%에 달하는데 반해, 질적 연구는 겨우 5.1%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질적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가 연구자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사회적 현상과, 문제, 인물 등에 대한 심층적으로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영순·김진희·김지영, 2015). 하지만 년도 별 출현에서 볼 때 질적 연구가 점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상별’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내용이 매우 미미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 유형' 조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준비 유형을 신체적 유형, 경제적 유형, 사회·정서적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모두가 포함된 유형은 전반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내용에 따른 노후준비 연구

단위: 편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계
노후준비유형	신체적	-	-	-	-	2	3	5
	신체/경제적	-	1	-	-	-	1	2
	신체적/사회·정서적	2	1	-	-	-	-	3
	경제적	8	10	7	8	8	4	45
	경제적/사회·정서적	2	1	1	1	-	-	5
	사회·정서적	4	3	4	2	-	1	14
	전반적	7	18	22	17	23	15	102
합계		23	34	34	28	33	24	176

노후준비 유형의 내용에서도 성별, 대상별 조건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유형이 혼합된 전반적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인 58.0%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25.6%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는 8.0%로 나타났다. 연도 별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적 노후준비는 2013년과 2014년에 나타난 이후로 확인되지 않은 반면,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유형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새롭게 나타남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요즘 신체적 건강의 관심사가 높아짐과 함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크고 작은 생활스트레스를 통해 마음의 병과 함께 신체 건강에도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바와 같이(박경, 2009), 심리 정서적 안정이 신체건강과도 연결됨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안정된 정서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함께 다루는 것으로 짐작된다.

2. 노후준비에 질적 연구와 연구내용

지금까지 노후준비에 관한 2013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성별, 세대별, 대상별, 연구방법 유형별, 노후준비 유형별 분석을 통해 노후준비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적연구방법에 비해 그 내용이 다소 미미하지만 노후준비에 관한 질적 연구방법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되어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2015년에 2편, 2016년에 1편,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편으로 총 9편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연구방법에서 양적연구방법을 제외하면 5.1%에 불과에 하다. 이에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된 9편의 노후준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정리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방법에 따른 노후준비 연구

년도	성별	세대	대상	유형	논문제목 (저자)
2018	혼성	베이비부머	한국인	경제적 사회적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뉴 실버세대의 노후준비 연구(김솔해, 최종훈)
	혼성	중년기	한국인	전반적	30~40대 1인 가구의 노후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관한 탐색적 고찰(정예원, 김소연)
	여성	노년기	한국인	신체적 사회·정서적	여성노인 또래상담자들의 자기분석에 나타난 노후준비관련 생활양식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황지은)
2017	혼성	베이비부머	한국인	전반적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불안과 노후준비 인식(노은영, 최재성)
	여성	중년기	한국인 이혼자	전반적	중년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 경험: 직업이 있는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이남, 한정란)
	남성	중년기	한국인	전반적	중소기업근로자의 은퇴준비에 관한 사례연구(이형종, 이한덕)
2016	여성	중년기	한국인 이혼자	전반적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 현황(이남)
2015	혼성	베이비부머	한국인	경제적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와 경제교육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적 접근으로(최영준)
	여성	청년기 중년기	결혼이주자	경제적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성지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조건이 혼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가 각각 4편 씩(44.4%)으로 같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성별조건에서 혼성인 경우가 83.2%이고 그 중 여성이 12.3%인데 반해, 질적 연구방법은 혼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대별 조건에서는 노년기 1편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에서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중년기를 다루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대상별 조건에서는 2015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1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 이혼자에 관한 내용이 2편 포함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 중 장애인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전체 대상별 조건에서 정주자인 한국인 중 일반인 다음으로 높은 편수를 나타냈던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에 반해, 전체 대상별 조건 중 한국인 이혼자 편수 2편 모두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는 전반적 유형이 5편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노후준비 유형 조건과 비슷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중년기 사람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동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성별, 세대별, 대상별, 연구방법별, 노후준비 유형별로 구분하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를 통하여 탐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성별조건에서는 남녀 모두를 포함한 혼성 연구가 83.2%로 가장 많았다. 이를 제외한 후 여성 관련 연구가 12.3%, 남성 관련 연구가 2.8%로 여성에 대한 연구가 남성에 대한 연구보다 월등히 많았다. 둘째, 세대별 조건에 따른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년기 세대 연구가 5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대와 노년기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대상별 연구는 이주자보다 정주자에 대한 연구가 93.9%로 월등히 많았지만, 정주자 안에서도 일반

인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이혼자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재외동포와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연구방법 유형에 따른 연구는 질적 연구보다 양적연구가 94.9%로 훨씬 높았지만 질적연구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노후준비 유형은 연구자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조건을 포괄한 혼합적인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경제적 노후준비가 주요 내용으로 한 연구는 25.6%로 나타났다. 또 신체적 노후준비는 2013년과 2014년에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섯째, 노후준비에 관한 질적 연구는 전체 성별조건과 다르게 혼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양적 연구는 2편과 질적연구 1편으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결혼이주자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노후준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 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가 아주 조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여성, 이혼여성,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 구조는 남성보다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다보니 여성 자신들은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지만 경제적인 현실은 노후준비 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노후준비를 인식하고 조금씩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등이 앞서서 방안을 마련하고 모색해야 시점이다. 노후준비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었을 때 개인적으론 삶의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론 사회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중년기 사람들이 중시하는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함으로 연구에 의의를 둔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살아갈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향미, 구종회(2014). 한국의 문화: 베이비부머의 노후 공동체의식과 사회참여 태도가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과문화, 74(-), 355-373.

고효정, 오명옥(2000).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삶의 질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6), 619-631.

김민수(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6(-), 225-250.

김솔해, 최종훈(2018).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뉴실버세대의 노후준비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 795-802.

김양이,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김연화, 황종규(2017). 세대별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2), 189-204.

김영순, 김진희, 김지영(2015). 질적 연구 여행. 경기도: 북코리아.

김영옥, 한재희(2014).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안 경험에 대한 연구: 경기도 S의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6), 2581-2602.

김재은(1983). 인간발달의 과정. 서울: 정민사.

김정근, 김효주(2018).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38(2), 1-18.

김혜진(2012).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제도 인지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53-80.

나지나, 백승애, 신은경, 김미혜(2010).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9-54.

노은영, 최재성(2017).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불안과 노후준비 인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4), 329-334.

박경(2009).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과 성향적 낙관주의의 중재효과. 스트레스연구, 17(4), 369-378.

박은숙, 김순자, 김소인, 전영자, 이평숙, 김행자, 한금선(1997).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간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6(2), 238-252.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박현식, 이선형, 최은희(2010). 충청남도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거주 지역 고령화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85-315.

박현식, 최옥자(2012). 독일교민의 노후준비 실태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67-487.

박현식(2013).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02-312.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황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변진숙, 권찬호(2016). 2차 베이비부머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 분석: 386·X세대(코호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173-19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석상훈, 권혁창, 송현주, 이은영, 오진연, 신혜리, 김균희(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Ⅱ: 제3차(2010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분석 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성영애(2018). 결혼과 자녀수로 구분한 가구유형별 노후준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가구주연령이 35~44세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FP조사, 11(2), 129-153.

성지혜(201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8(-), 83-115.

손병덕(2017). 결혼이민자의 자기효능감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7(2), 217-238.

송선희(2016).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49-56.

심의경, 박연진(2017).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본 중년기 노후준비도 결정요인. 노인복지연구, 72(2), 299-322.

양재혁, 김경렬(2017). 중년층의 여가스포츠참여유형이 가족건강성 및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2), 393-405.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5).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주)박영사.

유인순, 최수일(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지역 공단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245-262.

윤혜미(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6(4), 85-108.

이남, 한정란(2014).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3), 374-399.

이남(2016).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 현황. 한국노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6(1), 127-131.

이남, 한정란(2017). 중년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 경험: 직업이 있는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7(1), 151-171.

이미영(2017). 중년층의 노후준비 감사성향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과 뉴질랜드 재외동포 비교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291-304.

이여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세대. 가족과 문화, 24(1), 31-70.

이정은(2017). 이주자 내러티브를 둘러싼 사회적 역할의 지정과 정당화의 문제: 다문화 현장 연구에서의 관점들에 대하여. 어문논총, 72(-), 133-155.

이정화(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이형종, 이한덕(2017). 중소기업 근로자의 은퇴준비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449-465.

이형하(2013).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269-277.

임경수(2005). 인생의 봄과 가을: 중년의 심리이해와 분석. 서울: 학지사.

임인숙, 백수경(2015). 중년여성들의 완경 경험과 여성성 상실감의 관계. 한국여성학, 31(1), 1-32.

정순돌, 박애리(2016).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이 중년여성의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8(2), 41-63.

정예원, 김소연(2018). 30~40대 1인가구의 노후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8(5), 31-36.

정은경, 김종근(2017).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과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501-512.

최영준(201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경제교육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적 접근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3), 353-378.

황지은(2018). 여성노인또래상담자들의 자기분석에 나타난 노후준비관련 생활양식에 대한 질적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8), 330-330.

행정안전부(2017). 보도자료. 2017.09.03.

홍용춘(1997). 중년기 지침서: '이제 아빠는 돌아갈 수 없다'. 서울: 창조의 샘.

Antonucci. T., Akiyama. H. & Takahashi. K. (2004).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353-370.

Anderson, M., Li, Y., Bechhofer, F., McCrone, D., & Stewart, R. (2000). Sooner rather than later?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preparing for retirement. Ageing and Society, 20(4), 445-466.

Borland, D. C. (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Vol.6.

Crosnoe. R. & Elder, G. (2002) Su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Gil, A, G., Vega, W. A. & Dimas, J. M. (1994). Acculturative sttess and personal adjust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 bo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42-54.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and Schrster. Inc.

Guedes, Dartagnan P., Hatmann, Angelica C., Martini, Fabio Antonio N., Borges, Mercelo B. & Bernardelli, Rinaldo. (2012). Quality of Life and Physical Activity in a Sample of Brazilian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4(2), 212.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David

Mckay.

Jacques, E. (1967). The mid-life crisis. In R. Owen(Ed), Middle age. London: BBC.

Levison, D. J., Darrow, C. N., Klein, M. H.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a men`s life. New York: Altred Knopf, Inc.

Maria-EugeniaPrieto-Flores, Antonio Moreno-Jiménez, Gloria Fernandez-Mayoralas, Fermina Rojo-Perez, & Maria João Forjaz. (2012).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domains in subjective health in old a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6(1), 27-39.

Morgan, L. A. and Eckert, J. K. (2004). Retirement financial preparation: Implication for policy. Journal of Aging & Social Poclicy, 16(2), 19-34.

Oetting, E. R. & Beauvais, F. (1991). Orthogonal cultural identification theory: The cultural identification of minority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25, 655-685.

Riss: http://www.riss.kr/. 2018.10.19./2018.11.02. 검색.

<ABSTRACT>

Key words: French newspaper subsidy policy, Print Media National Congress, Newspaper Subsidy Legislation, Newspaper industry restructuring

논문 투고일	2019. .
논문 심사일	2019. .
게재 확정일	2019. .

채은희: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304B호
박미숙: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5남 171호